

aT, 농가 효자품목 '딸기' 사계절 생산 총력

생산 가능성 모색 기술설명회 개최
하절기 수출 확대 연계 방안 논의
스마트 정보 공유·네트워크 확대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가 효자품목인 딸기 사계절 생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T는 7일 "지난 5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딸기 유통 및 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사계절 딸기 생산을 위한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딸기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특유의 향과 식감, 당도 등으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대표 과일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생산량은 약 15만5천t으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과채류로 자리매김했다.

K-딸기는 높은 당도와 단단한 식감으로 해외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항공 운송과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딸기 유통 및 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사계절 딸기 생산을 위한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 <aT 제공>

고, 2026년 4월 말 기준 수출액은 5천68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 2025년에는 총 7천2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며 주요 수출국은 태국 1천970만 달러, 싱가포르 1천950만 달러, 홍콩 1천만 달러, 베트남 750만 달러 순이다.

다만 딸기는 생육 온도와 환경 관리가 까다로

워 주로 겨울철에 생산·소비가 집중되는 품목이다. 최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 영향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 주요 생산국에서도 연중 생산과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공급 공백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사계절 딸기 생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향후 딸기 공백기인 하절기 수출 확대와 연계할 수 있는 생산기술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스마트 농업 분야의 육종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 에코벳(주)이 모듈형 실내 스마트팜을 활용한 생

육 환경 제어 기술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고 사계절 생산 가능한 환경제어 농업 시스템 구축 방안을 업계 및 전문가들과 공유했다.

해당 기술은 실내 재배시설에서 온도, 습도, 광량, 이산화탄소 등 딸기 생육에 필요한 환경을 제어해 계절적 제약을 줄여 연중 안정적이고 균일한 생산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설명회에서는 이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향후 검증 필요 사항 등이 함께 논의됐다.

aT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사계절 딸기 생산 기술을 포함한 스마트 농업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여름철 딸기 수출 공백기 해소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기술 관련 네트워크를 넓히고, 농식품 수출·유통 정보를 바탕으로 K-딸기 사계절 생산 물량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딸기는 K-푸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품목"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사계절 딸기 생산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고, 기후변화 속에서도 신선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한전, 무안-신안 송전망 준공...전력 전송 능력 강화

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 기대

한국전력은 7일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거래소와 함께 무안군과 신안군을 연결하는 154kV 송전망(전남 운남-신안-읍동 간 52km)이 최종 준공됐다"고 밝혔다.

최근 재생에너지가 지속 확대되면서 기상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발전량 조절(출력제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무안 지역과 신안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망이

가동됨에 따라 전력 수요지로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돼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완화되고 약 190MW의 재생에너지의 접속 대기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준공된 송전망 경과지 대부분은 도서 지역으로 섬과 섬을 총 22번 횡단해야 하며 섬과 섬 사이의 선로길이는 최대 2km 달하고 철탑의 높이는 233m로 국내 최고 높이이다.

이러한 난관에도 철탑조립 전용 크레인 개발, 특수전선 활용 철탑 높이 축소, 친환경 진입로

부선 공법 등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송전망 구축을 완료할 수 있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재생E 계통연계 가속화 및 첨단 전력산업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망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전력설비 건설사업이 전국의 다양한 지역과 지역적 제약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신공법 개발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산인공 전남지사, 숙련기술인과 재능기부 봉사

곡성 삼용마을 찾아 전등·콘센트 등 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는 7일 "지난 5일 순천제일대학교, 대한미용사회 순천지부, 숙련기술인들과 함께 곡성군 임면 삼용마을을 방문해 지역상생을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순천제일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대한미용사회 순천지부, 전남동부지역기능장협의회 등 총 60명이 참여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참여자들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L

ED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누전 점검, 노후화된 수전 및 방충망 교체 등 생활안전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근육 마사지와 부상 방지 테이핑을 진행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헤어커트, 네일, 손 마사지 봉사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박태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장은 "이번 봉사 활동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가치와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지역 제조업 미래, 인공지능 전환으로 연다"

광주·전남·제주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지역협의회 출범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7일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전남·제주지역의 스마트제조기술기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가 호남권 공동으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는 지난 2월 공식 출범한 전국 '스마트제조기술기업협의회'의 지역 단위 조직으로 지역별로 광주지역은 ㈜쌍용소프트웨어의 이용재 회장, 전남지역은 ㈜드림테크의 정연오 회장, 제주지역은 주식회사 인플라의 김민교 회장이 각 지역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서울·인천권, 경기권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된 이번 호남권 출범식은 지역단위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협력체계 구축을 공식화하고, 각 협의회의 운영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기술기업들과 각 지역의 스마트제조혁신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조 AX 전문가 특강 ▲스마트공장 우수 구축 사례 공유 ▲기술교류 및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돼 제조 AX 솔루션 및 시장 확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찬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이번에 출범하는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지역협의회는 지역 제조 AX 생태계를 조성하는 구심점이자 민·관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중기청 역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제조 AX가 지역내에 탄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진짜 맛과 멋이 있는
진도조금시장

◎ 장이 서는 날 ◎
2, 7, 12, 17, 22, 27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진도군
광고문의 : 062)650-2099